

중국 길림성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허 철 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 목 적

이 글은 1995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국대학교의 洪允杓 교수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파견되어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 대하여 연수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간략히 쓴 것이다. 이 글에 수록된 약간의 정보가 앞으로 유사한 업무로 이 지역을 방문할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이 글을 통하여 현지 동포들이 우리말을 지켜가는 정신이 부족함이 없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 주요 일정

7월 16일 黑龍江省 파견자인 우리 원의 崔圭一 부장과 金世中 선생 일행과 함께 북경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인 7월 17일에 연길에 도착하고, 18일에는 新華書店,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書店 등 연길시의 주요 서점들을 둘러보며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하였다.

7월 19일과 20일은 용정 실험소학교에서 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7월 21일은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를 방문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7월 24일에는 중국조선어문잡지사를 방문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두 기구의 방

문을 통하여 현지의 조선어문 교육과 보급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7월 27일은 연변대학의 학술 대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동북삼성조선문교재협회의소조 창립 기념대회에 참석하였다. 7월 28일에는 현지 관계자들의 배려로 백두산을 참관하였다. 7월 29일에 연길에서 선양(瀋陽)으로 출발.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였다.

3. 주요 업무 수행 사항

(1) 강의 활동

7월 19일 오전에 연길시에서 용정으로 이동하여 08:30부터 12:00까지 용정실협소학교에서 소학교 교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는 홍윤표 先生께서 국어 교육의 방안과 문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소학교 교원인 까닭에 국어 교육의 방안에 대하여 특히 관심이 많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수법임을 강조하고 예로써 구개음화 등 국어의 일부 음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또 수강생들의 국어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훈민정음의 기원과 창제 원리를 설명하였다. 자료로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복사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다.

7월 20일 오전에 다시 연길시에서 용정으로 이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08:30부터 11:30까지, 14:00부터 16:00까지 2회에 나누어 강의를 실시하였다. 오전 강의는 보고자가 남북한의 언어 비교와 언어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휘적 차이 가운데 많은 것이 방언적 차이에 불과함을 사례 중심으로 들고, 그 밖에 국어 순화와 말다듬기, 그리고 남북한의 신어로 인한 차이가 있음을 역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언어 예절은 1992년 남한에서 확정된 표준 화법을 중심으로 호칭어, 지칭어 등을 소개하였다. 오후에는 홍윤표 先生께서 작문법과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2) 조선어 교육 관련 기관 실태 파악

7월 21일에 연길시의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를 방문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이 민족교육출판사는 동북삼성의 각급 학교 교과서를 연구 출판하는 주요 기구이다. 1947년에 창립되어 현재 직원 630여 명에 매년 약 600여 종의 조선어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조선어문 교육과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7월 24일에는 중국조선어문잡지사를 방문하였다. 이 잡지사는 직원 9명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문 보급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다. 잡지 '중국조선어문'은 격월로 약 4,000부를 발간하는데 조선어문에 관한 실용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학술 연구 등도 실고 있으며 남한의 어문 규범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남한의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충분히 보급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조선어문 관련 자료 구입

연길시는 동북삼성의 조선어문 정책을 결정하는 곳으로서 조선어문 교재 등 출판물이 많은 편이다. 파견자는 신화서점,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서점, 고등교육교재서점(연변대 앞) 등에 들러 조선어문 관련 서적을 구입하였다. 지금까지 2,3년에 걸쳐 지난 파견자들이 이미 주요 서적은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번 파견 중에는 국어연구원에서 완비하고 있지 못한 소학교 및 초·고급중학교 교과서를 구입하였다. 현재 교과서는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현재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2,3년 후에 완료 예정) 새로 개편된 교과서를 최대한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처 구입하지 못한 교과서는 후에 민족교육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기증받았다.

(4) 주요 행사 참가

7월 27일 오전에 연변대학에서 주최하는 '전국조선어~한국어 교수 연구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에는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석하여 한쪽을 비롯한 타 민족에 대한 효과적인 우리말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토론하였다. 토론회 명칭에도 나타났듯이 우리말을 가리키는 남북한의 용어가 달라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동포들이 남북한 문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수용하는 태도가 학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발표 내용 가운데 '조선어~한국어'라는 복합적인 명칭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토론회는 3일 간 계속되는 것이나 사정상 첫날 오전밖에 참석치 못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북삼성조선문교재협의회소조 창립 기념대회(연변예술극장)

에 참석하였다. 1995년 현재로 동북삼성조선문교재협회의소조는 창립 20돌을 맞았고, 전국조선문교재심사위원회는 창립 10돌을 맞았다. 이 기념 대회는 한족 및 다른 소수 민족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였고, 조선어문 교육과 보급에 공로가 큰 단체와 사람에게 상금을 주어 격려하였다. 기념 행사로 어린이들의 무용, 노래, 연극의 공연이 장시간 이어졌다. 단순한 기념 대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조선족들의 조선어 교육의 열의를 과시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도 더불어 느껴졌다.

(5) 현지 언어 실태 조사

동일한 언어이긴 하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언어적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남북한과 달리 길림성(연길)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말의 한 특징으로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점을 들 수 있다. 또 고유어 우리말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주무시다'라는 말은 없고 '쉬다'가 그 뜻을 포괄한다. 해당 지역의 언어적 실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지난 파견자의 보고서에 단편적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앞으로 남북한과 중국 동포의 언어적 차이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연구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4. 문제점 분석

(1) 강의와 교재

현재 국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사업의 목표는 남한의 어문 규범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의 연수 교재도 이 목표에 충실하여, 본문의 14개 단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어문 규범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중국은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수립하고 이미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이 이 규범에 따라 출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남한의 어문 규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비록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이나 출판물에서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현지인들은 그들이 미처 모르는 국어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는 크게 국어 교육에 관한 것과 국어 일반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에서 수강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들은 특히 국어 교육(국어 교수법)에 관심이 많다. 또 국어 일반에서는 국어의 역사에 관한 내용에 많은 관

심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즉,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직접적으로 이용된다든가, 출판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실용적인 면에 관련되어야만 관심을 갖는다.

사실 이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남한의 어문 규범을 일방적으로 강의하기에는 강의자로서 어려움이 많다.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강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난처하게 느끼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강의 일시가 제한되어 교재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다.

(2) 자료

현지인들은 강의 외에 남한에서 출판되는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물론 현재 제공하는 자료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예산이라든가 발송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현재로서는 큰 걸림돌로 보인다.

(3) 강의 일사

중국에는 국가 교육위원회와 성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보급협수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학교의 교육 시설, 교과 내용, 학생 수, 학생의 출결 사항 등 학교의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연변 자치주가 받게 되어 이번 파견 기간 중에 교사들은 그 준비로 매우 바빴다. 강의를 실시한 용정실험소학교의 경우도 학교 내부 수리로 어수선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 준비에 동원되다 보니 오랜 기간 강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불가피하게 강의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강의 일자를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건의 사항

위에서 문제점과 더불어 일부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현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강의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 한국어 어문 규범을 보급하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과 달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안으로 규범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이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 현재 중국의 조선어 방송은 서울말을 표준으로 삼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어문 규범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출판된 충분한 자료의 공급은 근본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남한의 어문 규범에 친숙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현재 동포들에게 자신들의 어문 규범을 버리고 남과 북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어문 규범이 단시일 내에 통일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때 우선은 현지인들로 하여금 남한의 어문 규범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들이 선별적으로 남한의 어문 규범을 조금씩이나마 현지 사정에 맞추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다양한 자료를 현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사전은 예를 들면 속담 사전, 수수께끼 사전, 뉘앙스 풀이 사전 등 다양할수록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를 보내야 할 또다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남한의 어문 규범을 자연스럽게 보급하는 결과를 얻는다. 둘째, 교류 형식을 빌려 현지의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셋째, 현재 단기간의 파견 이후 다음해까지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참고로 현지 기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 연변대학 : 한국어 교육책자(명도한국어, 기타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책자), 학술 전문지
- 조선어문잡지사 : 국어 사전(금성관, 한글학회, 기타 다양한 특성의 사전)
- 민족교육출판사 : 어린이 동화책, 국어 사전, 학술 연구 자료 등

(3) 컴퓨터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사업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지에서 우리말을 보급하는 데에 컴퓨터는 실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조선어문잡지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컴퓨터가 있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결국 조선어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지 기관들은 하나같이 컴퓨터의 보급을 희망하고 있다.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우리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의 다양한 어문 관련 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료 교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둘째, 전산 자료를 보냄으로써 책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남한에서 개발한 글자꼴 등을 자연스럽게 보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위 (2), (3)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의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보급을 파견과 초청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파악하지 말고 별도의 대등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강의 내용, 교재, 파견자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는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길 지역에서 요청한 대로 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강의할 것이라면 국어 교수법 연구자를 선정 파견할 수 있다.

(6) 해당 사업에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업으로 현지와 남한의 언어 간에 차이가 나는 말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전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은 파견자들을 통하여 극히 단편적으로 조사되었을 따름이다. 현재 파견 기간과 업무 성격상 파견자가 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이번 파견 중에는 현지의 방송국 등 언론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주요 기구를 선정하여 파견자들이 체계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현지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